

16. '95 住宅 · 人口 현황과 특성

資料提供：統計廳

이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 7월 17일 발표한 「95년도 주택 · 인구 총조사」의 중간집계결과이다. 이 중간집계는 전체 조사내용가운데 2%의 표본을 우선 가려 분석한 “2% 표본 속보”이며 최종분석결과는 올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 택

주택보급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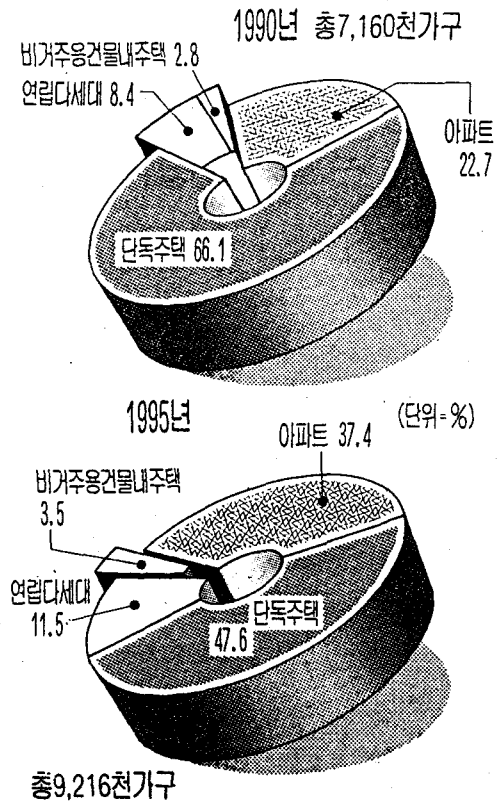
빈집을 제외한 총주택수는 9백21만6천호로 90년의 7백16만호에 비해 2백5만6천호(28.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86.1%로 13.7% 포인트 상승했다.

동지역에서는 1백92만5천호(41.4%)가 증가했으나 읍면지역은 13만1천호(5.2%) 증가에 그쳤다.

주택종류별로는 아파트가 지난 5년간 배이상 증가한 3백44만7천호에 달했고 연립·다세대주택도 1백6만5천호로 76.6%가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34만4천호가 감소한 4백38만3천호를 기록했다.

대전지역의 주택수가 90년에 비해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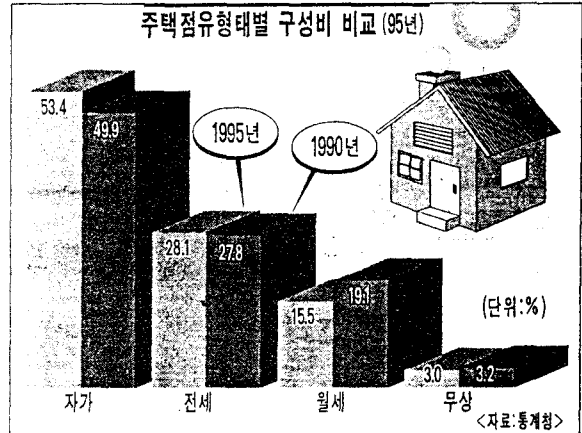
주택의 종류별 구성비 비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인천(64.2%), 경기(54.8%), 광주(51.5%), 대구(46.1%)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주택이 크게 증가했다. 전남(9.1%), 충남(12.2%), 강원(12.6%), 경북(12.8%) 등 지방의 증가율은 낮았다.

주택면적 확대

전국의 주택당 평균건평은 25.1평으로 90년의 24.5평보다 0.6평이 넓어졌다. 동 지역은 26.3평으로 90년의 26.7평보다 오히려 줄었고 읍면지역은 22.1평으로 90년의 20.5평보다 1.6평이 늘었다. 이는 도시 지역에서 단독주택보다 건평이 비교적 적은 아파트건설이 크게 늘어난 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건평이 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의 평균건평은 90년 21.9평에서 21.3평으로 0.6평 축소됐다. 동지역은 22.0평에서 21.4평으로 줄었으나 읍면지역은 18.6평에서 21.1평으로 2.5평 늘었다.

주택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19평 미만이 30.2% 감소한 반면 29평 이상은 16.0% 증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반면에 아파트는 19~29평이 가장 높은 1백41.0%의 증가율을 보였고 19평 미만도 1백9.0% 증가했으나 29평 이상 대형은 59.6% 증가에 그쳤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모든 규모에서 60~80%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총방수의 합계를 주택수로 나눈 주택당 방수는 4.39개로 90년의 3.96개보다 0.43개가 증가했다. 방수가 4개인 주택이 전체주택중 38.6% 3백35만5천호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방수별 주택수를 90년과 비교하면 총방수가 1~2개인 주택비중은 18.1%에서 7.1%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3개 이상인 주택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4개인 주택이 22.6%(1백61만9천호)에서 38.6%(3백55만5천호)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단독주택 대지면적 증가

전국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은 평균 77.5평으로 90년보다 3.6평 늘어났다. 동지역에서는 54.2평, 읍면지역은 1백1.7평으로 읍면지역이 47.5평 더 넓다. 또 90년보다 동지역은 2.2

평, 읍면지역은 4.9평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지역의 단독주택대지면적이 1백3.1평으로 가장 넓었고 충북 96.2평, 제주 95.8평을 기록했다. 서울 45.1평을 비롯해 부산 42.1평, 대구 55.3평, 인천 54.3평 광주 60.4평 등 대도시일수록 대지면적이 좁았다.

(주택수 및 주택당 거주 가구수)

(단위 : 천호, 천가구, 가구)

구 분	1990			1995		
	주택수	가구수	주 택 당 거주가구수	주택수	가구수	주 택 당 거주가구수
전 국	7,160	11,301	1.6	9,216	12,905	1.4
단 독 주 택	4,727	8,506	1.8	4,383	7,701	1.8
아 파 트	1,628	1,678	1.0	3,447	3,458	1.0
연 립·다 세 대	603	729	1.2	1,065	1,175	1.1
비 거 주 용 건 물	202	388	1.9	321	571	1.8
내 주 택						

가 구

혼자사는 단독가구급증

전체 가구수는 1천2백96만1천가구로 90년보다 1백60만6천가구(14.1%)가 증가했다. 이 중 독신자와 농어촌에서 혼자사는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단독가구는 5년전 1백2만2천가구에 비해 61.4%나 증가한 1백65만가구에 달했다.

4인가구가 4백7만5천가구로 3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인가구는 2백68만가구(20.7%) 2인가구는 2백23만7천가구(17.3%)로 집계됐다.

분가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도 3.7명에서 3.3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자가거주자 증가

총가구중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자가거주)는 6백91만3천가구로 53.4%를 차지했고 전세는 3백64만5천가구(28.1%), 월세는 2백1만가구(15.5%)로 나타났다. 정부의 꾸준한 주택공급정책과 주택가격안정으로 자가거주비율은 90년 49.9%에서 53.4%로 높아졌다. 전세가구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월세비중은 19.1%에서 15.5%로 크게 줄었다.

가구당 사용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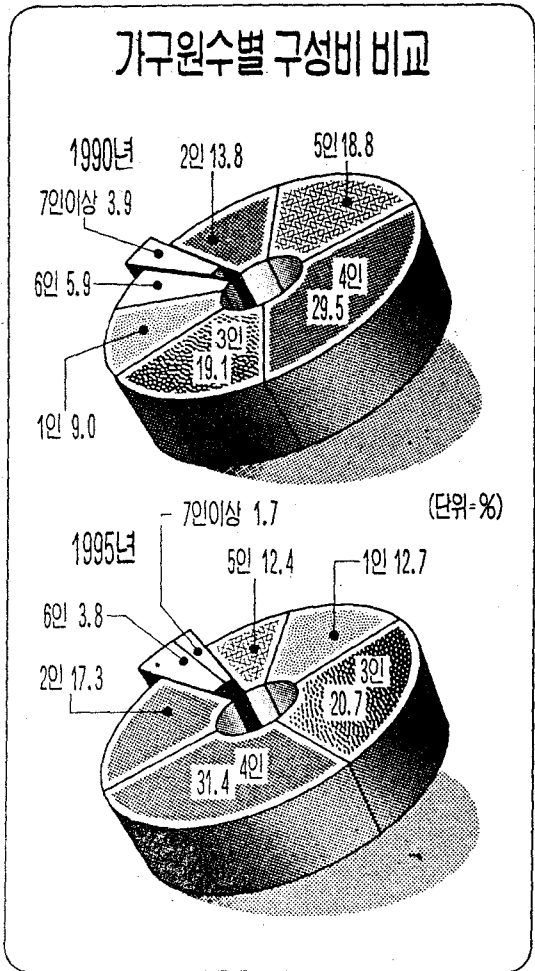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거생활공간이 커지면서 가구당 사용방수는 90년 2.5개에서 95년에는 3.1개로 증가했다.

주택당 거주가구수는 평균 1.4가구로 90년의 1.6가구보다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이용가구증가

90년 52.4%의 가구만이 설치했던 입식 부엌시설을 84.5%의 가구가 채용한 것을 포함해 수세식화장실(75.0%), 온수목욕시설설치(75.1%) 등 주거시설도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생활수준향상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가구는 5만1천가구(0.4%)에서 9만가구(0.7%)로 늘어나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 구성비 비교



인 구

여성학력수준 향상

지난해 11월 1일 기준 만6세 이상인구중 초등학교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92.7%를 차지, 지난 90년(91.8%)에 비해 국민교육수준이 향상됐다. 15세 이상 인구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50.0%에서 57.8%로, 전문대이상 졸업자는 11.6%에서 16.6%로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학력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고졸이상 여성인구가 90년 6백77만명에서 8백69만명으로 28.4% 증가, 남자의 증가율(18.4%)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여성인구 중에서 고졸이상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1.6%에서 50.3%로 대폭 상승했다.

만혼추세확산과 독신자증가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20대 여성중 미혼자비율은 지난 90년 50.8%에서 95년엔 56.0%로 크게 높아졌다. 20년대 미혼남성비율도 77.5%에서 80.5%로 늘었다. 30대에서도 미혼남성비율은 9.5%에서 13.0%로, 미혼여성비율은 4.1%에서 4.8%로 늘어났다. 그만큼 결혼을 늦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혼인구는 85년 0.6%, 90년 0.8%, 95년 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주율 상승

자기가 태어난 시도를 떠나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44.3%였다. 이는 90년의 41.3%보다 3.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에 출생시도를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비율은 55.7%, 특히 전남과 적북지역이 각각 89.1%와 86.3%로 매우 높았고 제주 84.4%, 경북 80.7%, 충남 78.7%의 순서였다.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경우 타지역 출생자비율이 50%를 넘었다. 서울의 경우 토박이는 43.5%이고 전남출생자가 9.5%, 경기 8.2%, 충남 7.0%, 전북 6.9%, 경북출생자 5.4%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호남출생자가 16.4%로 토박이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인근 도지역의 인구가 주로 전입됐다.

수도권인구집중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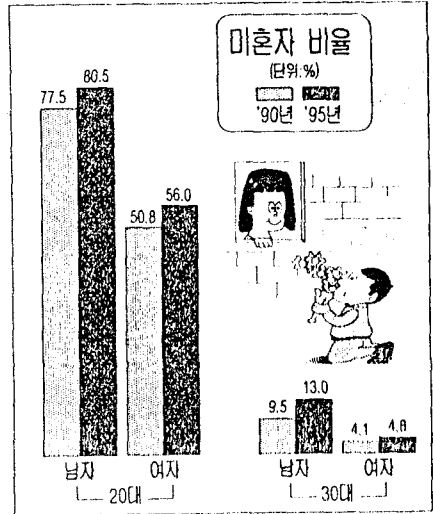
5세이상 인구중 5년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시·군·구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은 25.1%에 달했다.

서울과 부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으나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수도권인접지역은 인구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출인구에서 전입인구를 뺀 전출초과인구가 90년 4만4천명에서 95년 88만4천명으로 크게 늘어 그만큼 탈서울인구가 많았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에서는 95년 전입초과인구가 21만6천명과 1백15만명에 달해 수도권인구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의 5개도는 90년에 이어 전출초과현상이 지속됐다.

대도시주민 출생지별 구성비 (단위:%)

서울	서울 (43.5)	전남 (9.5)	경기 (8.2)	충남 (7.0)	전북 (6.9)	경북 (5.4)	기타 (19.5)
부산	부산 (48.6)	경남 (25.5)	경북 (8.9)	전남 (4.7)	기타 (12.3)		
대구	대구 (46.7)	경북 (35.3)	경남 (7.1)	기타 (10.9)			
인천	인천 (39.2)	서울 (10.8)	충남 (9.5)	경기 (9.1)	전남 (7.0)	전북 (4.8)	기타 (19.6)
광주	광주 (44.4)	전남 (45.0)	전북 (3.8)	기타 (6.8)			
대전	대전 (39.0)	충남 (23.0)	충북 (9.2)	전북 (5.6)	서울 (5.5)	기타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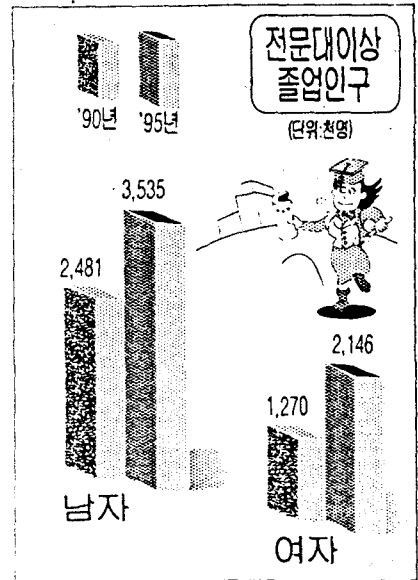


대도시사람들 지방으로 출퇴근

6대도시의 12세 이상인구중 자기가 사는 읍·면·동을 벗어나 통근이나 통학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서울이 64.6%로 가장 높고 대구가 60.7%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90년과 비교해보면 통근통학하는 인구비율이 가장 높아진 지역은 광주로 55.5%에서 62.9%로 늘었다.

대도시의 주야간인구이동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5대도시는 주간에 주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은 인근 외곽지역에 위치한 공장이나 대학교로 통근·통학이 많아 주간유출초과인구가 각각 2만~8만명에 이르렀다. 인천은 서울로의 유출인구가 많아 유출초과인구가 6만7천명에 달했다. 서울은 외곽신도시개발영향으로 주간 유입초과인구가 90년 32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었다.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주간인구가 야간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10개구였으며 특히 대기



업 본사와 도소매 및 서비스업체가 밀집된 중구와 종로구의 주간인구는 야간인구의 3.9배와 2.4배에 달했다.

승용차 통근통학급증

6대도시에서 통근통학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31.7%, 도보 22.5%, 승용차 20.4%, 전철·지하철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이용률은 90년에 비해 9.1% 포인트 줄었다. 승용차는 자동차보급확대에 힘입어 90년의 9.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도시 주·야간 인구〉

(단위 : 천명)

지역	1990						1995					
	야간(상주)인구(A)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B)	주간인구 지수(B/A·%)	유입인구 초과	야간(상주)인구(A)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B)	주간인구 지수(B/A·%)	유입인구 초과
서울	8,383	676	356	8,703	103.8	320	8,400	955	518	8,837	105.2	437
부산	2,975	34	66	2,943	98.9	△32	3,126	52	107	3,071	98.2	△55
대구	1,749	32	93	1,688	96.5	△61	1,979	33	114	1,898	95.9	△81
인천	1,379	83	150	1,312	95.2	△67	1,792	114	202	1,704	95.1	△88
광주	879	27	28	878	99.8	△1	1,001	29	49	981	98.0	△20
대전	813	23	25	811	99.8	△2	1,012	27	46	993	98.2	△19

주 : 주간인구 = 야간인구 + 유입인구 - 유출인구

특이현상

홀아비보다 과부수가 8배나 많아 홀몸이 되는데도 성차(性差)를 보인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은 결혼시기를 늦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전체 미혼율은 거꾸로 떨어지는 추세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표본조사는 이처럼 특이한 현상을 담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초등학교 이상 학력비율이 90년 91.8%에서 지난해 92.7%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로 학력수준이 향상되는 추세. 그러나 초등학교이상 재학중인 학생수는 1천1백2만명(90년)에서 1천57만명(95년)으로 줄었다.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취학적령인구가 줄어든 것이 주요원인.

시부모 모시는 신혼부부 늘고 있다.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가구중 자녀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가 9만2천가구에서 15만4천가구로 67.4%나 증가. 이들의 대부분은 신혼 맞벌이부부로 육아와 가사부담이 많아지자 아예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

만혼추세인데도 미혼율은 떨어졌다.

20대 중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남자의 경우 77.5%에서 80.5%로, 여자는 50.8%에서 56%로 증가했다. 30대도 남자가 9.5%에서 13%로, 여자는 4.1%에서 4.8%로 높아졌다.

그러나 15세이상 전체인구에서 미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2.9%에서 30.2%로 오히려 내려갔다. 통계청은 결혼적령기 인구가 절대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과부가 홀아비보다 8배나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은 모두 2백57만3천명. 이 가운데 여자는 2백27만7천명으로 남자(29만6천명)의 7.7배나 된다. 여자의 재혼율이 남자보다 낮은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근본원인은 평균연령이 남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

전남에는 외지인이 가장 적다

서울에 사는 전남출신은 9.5%로 외지인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 부산, 경기지역에서도 세번째로 많다.

그러나 출생지에 살고 있는 토박이 비율은 전남지역이 89.1%로 단연 높다. 이같은 통계불균형에 대해 통계청은 전남지역의 경우 외지로 많이 빠져나갔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지 않아 토박이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

서울중구에서는 4명중 3명이 밤이면 떠난다

서울 중구의 경우 낮에 활동하는 인구는 44만9천명이지만 실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11만5천명. 대기업본사 등 사무실과 음식점 등이 많기 때문.

열가구 중 한가구는 단칸방에 산다.

주거공간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됐으나 아직도 방 한칸만 쓰는 가구가 1백47만2천가구로 전체가구의 11.2%나 된다.

도시에서는 집 평수가 줄었다.

전국의 주택당 평균건평은 25.1평으로 5년전의 24.5평보다 0.6평이 커졌다. 그러나 전국의 동(洞)지역으로만 국한해보면 26.7평에서 26.3평으로 0.4평이나 줄었다.

화장실이 없는 극빈층이 오히려 늘었다.

지난 5년 사이에 부엌시설, 화장실시설, 목욕시설 등 주거시설은 눈에 띄게 나아졌으나 화장실이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가구수는 지난 90년 5만1천가구에서 9만가구로 77%나 증가했다.

주택회보